<h1>나 혼자만 레벨업-80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hd4c33f6bf5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80화</p>  
<p>-저 짤리면 책임져 주실 겁니까?</p>  
<p>"예?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?"</p>  
<p>-어제 일, 협회장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. 만약 각성자 신원이 새 나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잡아 내서 반드시 처벌하시겠답니다.</p>  
<p>"고건희 협회장님께서요?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습니까?"</p>  
<p>-협회장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?</p>  
<p>"..."</p>  
<p>-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끊겠습니다.</p>  
<p>"...다음에 또 연락드리죠."</p>  
<p>딸깍.</p>  
<p>전화는 그렇게 끊겼다.</p>  
<p>수화기를 내려놓는 사신 길드의 마스터 임태규의 얼굴은 좋지 못했다.</p>  
<p>'이게 무슨 일이래...'</p>  
<p>2년 만에 초대형 신인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사장인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.</p>  
<p>그런데 이런 답변이 돌아올 줄이야.</p>  
<p>잘리면 책임져 줄 거냐고?</p>  
<p>다른 이도 아니고 고건희 협회장에게 찍혀서 쫓겨난 협회 직원을 받아 줄 간 큰 길드가 있을 리가.</p>  
<p>각성자 신원을 안다고 영입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말이다.</p>  
<p>'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내 처벌한다...'</p>  
<p>고건희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.</p>  
<p>'그런데 이 영감탱이가 갑자기 노망이 들었나 왜 안하던 짓을 하지?'</p>  
<p>무슨 바람이 분 걸까?</p>  
<p>각성자의 신원 유출 금지라니.</p>  
<p>유례가 없는 일이었다.</p>  
<p>덕분에 정식 발표가 날 때까지 사신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됐다.</p>  
<p>억울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다.</p>  
<p>'그럼 대체 최종인, 백윤호는 어떻게 알고 어제 거기 있었던 거야?'</p>  
<p>정보력의 차이인가?</p>  
<p>그만큼 이 바닥에서 사신 길드의 영향력이 죽었다는 뜻일까?</p>  
<p>만약 어제 나타났다는 초대형 신인이 헌터스나 백호에 들어간다면 안 그래도 벌어진 격차를 영영 따라잡을 수 없게 될 터.</p>  
<p>상황이 이런데 난데없는 떨어진 함구령이 사신의 앞길을 가로막아 버렸다.</p>  
<p>'이 영감은 전생에 나랑 무슨 원수를 졌나?'</p>  
<p>백윤호가 사신 길드를 탈퇴할 때 백호 길드가 무사히 만들어지도록 도운 것도 그 영감이었다.</p>  
<p>그 여파로 사신은 최고의 길드라는 자리에서 밀려났다.</p>  
<p>헌터스와 백호는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, 사신은 계속해서 제자리만 맴돌고 있었다.</p>  
<p>'이쯤 했으면 이제 사신도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!'</p>  
<p>문득 고건희가 원망스러워졌다.</p>  
<p>그러나 뾰족한 수가 있나?</p>  
<p>임태규는 안타까운 마음에 발만 동동 굴러댈 뿐이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'일일 퀘스트는 끝냈고.'</p>  
<p>진우는 가벼운 마음으로 인터넷을 뒤적거렸다.</p>  
<p>재측정까진 남은 시간은 이틀.</p>  
<p>그동안 아티팩트 거래에 대한 정보나 모으려고 컴퓨터를 켰다.</p>  
<p>'헉!'</p>  
<p>경매 정보를 훑어보던 진우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'최소 단위가 억이네.'</p>  
<p>어디 그뿐인가?</p>  
<p>좀 괜찮다 싶은 물건들은 기본 수십억이 넘어갔다.</p>  
<p>'하긴...'</p>  
<p>헌터에게 장비는 목숨줄과 같았다.</p>  
<p>좋은 장비를 쓸수록 더 안전해지는 건 말할 필요가 없었다.</p>  
<p>헌터들의 수입이 적은 편도 아니고, 더 안전하고 빠르게 사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있는데 돈을 아낄 이유가 있을까?</p>  
<p>이해는 할 수 있었다.</p>  
<p>할 수는 있지만 역시 놀랍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.</p>  
<p>아티팩트 가격들을 보니 슬슬 불안해졌다.</p>  
<p>'이거 지금 가진 돈으로는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?'</p>  
<p>경매에 올라와 있는 화속성 방어 아티팩트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, 높은 등급 방어구를 구매하려면 지금 가진 돈으로는 턱도 없을 듯했다.</p>  
<p>'돈은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는데...'</p>  
<p>그건 일반인의 관점이었을 뿐 헌터들의 관점에서는 아직 한참 부족했다.</p>  
<p>통장에 든 돈이 얼추 17억 정도.</p>  
<p>원하는 아티팩트를 구매하려면 역시 '탐욕의 구슬'을 파는 수밖에 없었다.</p>  
<p>판매자의 입장이 되자 진우의 표정이 달라졌다.</p>  
<p>'아티팩트를 사는 데 많은 돈이 든다는 건 반대로 내가 가진 아티팩트를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 소리.'</p>  
<p>딸깍.</p>  
<p>마우스를 움직여 검색하자 현재 판매 중인 마법 도구들이 주르륵 떴다.</p>  
<p>'...'</p>  
<p>아무리 눈여겨보아도 마법 데미지를 두 배나 증가시켜 주는 아티팩트는 없었다.</p>  
<p>끽해야 원래 힘에서 20~30퍼센트 추가되는 수준.</p>  
<p>그런 아티팩트들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가였다.</p>  
<p>'마법 도구들 가격은 장난이 아니구나.'</p>  
<p>생각해 보니 20퍼센트도 적지 않았다.</p>  
<p>이런 고가의 아티팩트들을 살 수 있는 건 상급, 아니 최상급 헌터 정도다.</p>  
<p>그런데 그런 이들의 힘을 20퍼센트나 올려 준다?</p>  
<p>그 차이는 어마어마할 터.</p>  
<p>상급 헌터들도 그걸 아니까 이만큼 돈을 주고 아티팩트를 구매하는 거다.</p>  
<p>실제로 방금까지 판매 중이었던 물건에 판매완료 표시가 붙는 경우가 종종 보였다.</p>  
<p>하물며 20퍼센트짜리도 이럴진대...</p>  
<p>'이건 대체 얼마에 팔면 되는 거지?'</p>  
<p>꿀꺽.</p>  
<p>진우는 침을 삼켰다.</p>  
<p>아티팩트 같은 건 꿈도 못 꾸던 때가 바로 얼마 전이라, 지금 단계에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.</p>  
<p>'그러니까 경매가 있는 거겠지.'</p>  
<p>탐욕의 구슬을 경매에 내놓았을 때 부디 괜찮은 가격이 나오기를.</p>  
<p>진우는 만족스런 미소를 지으며 경매정보창을 닫았다.</p>  
<p>알아본 결과 아티팩트를 파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.</p>  
<p>하나는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 파는 것.</p>  
<p>다른 하나는 블랙마켓. 즉 암시장을 통해 파는 것.</p>  
<p>하지만 암시장은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.</p>  
<p>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으니까.</p>  
<p>'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접촉할 수 있다면 블랙마켓이라고 불리지도 않았겠지.'</p>  
<p>탐욕의 구슬은 뒤가 구린 물건이 아니니 굳이 블랙마켓을 거쳐야 할 필요도 없고.</p>  
<p>그러니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판매의 전문가들인 아티팩트 거래소에 탐욕의 구슬을 맡기고 경매로 처분하는 것이었다.</p>  
<p>세금과 수수료가 떼이기는 해도 가장 빠르고 뒤끝이 없는 방법이었다.</p>  
<p>'문제는 내가 이걸 얻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건데...'</p>  
<p>E급 헌터가 현존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아티팩트를 가지고 왔다.</p>  
<p>이걸 조용히 넘어가줄까?</p>  
<p>한국 헌터옥션은 헌터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가장 큰 기업이다. 의심쩍은 부분은 하나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리라.</p>  
<p>'그래서 자격증이 필요한 거지.'</p>  
<p>S등급이 찍혀 있는 새로운 헌터 자격증이.</p>  
<p>그걸 위해 재심사를 받았다.</p>  
<p>결과는 성공적.</p>  
<p>고건희 협회장의 말을 신뢰한다면 이틀 후에는 새 자격증을 문제없이 손에 쥘 수 있었다.</p>  
<p>괜히 협회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거절하는 바람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잠깐 걱정도 했지만...</p>  
<p>'협회장님이 그럴 분은 아닌 거 같아서 다행이네.'</p>  
<p>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그 순간까지도 협회장의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었다.</p>  
<p>오랜 시간 남들의 눈치를 보고 살면 분위기 파악에 도가 트는 법이다.</p>  
<p>딱 진우가 그랬다.</p>  
<p>E급으로 4년 동안 다른 헌터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. 그래서 어지간한 상황은 사람들의 표정만 봐도 대충 파악할 수 있었다.</p>  
<p>절대 고건희의 표정은 가식이 아니었다.</p>  
<p>적어도 진우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.</p>  
<p>그러니 걱정할 것 없이 이틀 뒤에 있을 재측정만 기다리면 될 듯 했다.</p>  
<p>'그런데... 그동안 뭐한다?'</p>  
<p>진우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다.</p>  
<p>이틀.</p>  
<p>뭔가 하기에는 짧고, 마냥 놀기엔 긴 시간.</p>  
<p>'한번 둘러보기라도 할까?'</p>  
<p>반쯤 흥미 삼아 마우스 커서를 헌터 사이트의 구인 게시판 쪽으로 움직였다.</p>  
<p>딸깍.</p>  
<p>클릭 한 번에 수많은 게시물이 화면을 채웠다.</p>  
<p>특히 요 근처에서 개인 공격대를 모집한다는 글들이 많이 보였다.</p>  
<p>'...'</p>  
<p>원인은 뻔하다.</p>  
<p>자신과 유진호가 며칠간 일대의 C급 게이트들을 독차지해 버려서 주변 공격대들의 일자리가 잠시 끊겼었다.</p>  
<p>그 반동으로 그때 손 놓고 있었던 공격대들이 지금 활발하게 레이드를 하고 있는 듯했다.</p>  
<p>진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페이지를 넘겼다.</p>  
<p>'이제 C급 던전에서는 업이 되지 않으니.'</p>  
<p>마지막으로 C급 던전에 들어갔을 때는 1업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.</p>  
<p>아니, 하루도 모자라 이틀을 달리고 나서야 겨우 1업이 됐다.</p>  
<p>지금은 그때보다 15레벨 이상 올라간 상태.</p>  
<p>경험치에 눈금이 있다면 미동조차 않을 상황이었다.</p>  
<p>'지금 C급 게이트는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...'</p>  
<p>그러나 안타깝게도 상급 던전을 공략할 멤버들을 구하는 게시물은 없었다.</p>  
<p>개인 공격대가 상급 던전을 공략한다는 건 자살행위고, 길드들이 이런 데서 대체 멤버를 구할 가능성은 없으니 말이다.</p>  
<p>그래도 혹시 모르니까.</p>  
<p>'검색 조건을 바꿔 볼까?'</p>  
<p>진우는 상급 던전만 뜨도록 검색 조건을 바꾸었다.</p>  
<p>딸깍.</p>  
<p>설마 있을까 하면서도 전혀 기대는 안 하고 있었다.</p>  
<p>그런데.</p>  
<p>'...어?'</p>  
<p>진짜 뜨는 글이 있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"E급이시라고요?"</p>  
<p>"네."</p>  
<p>"이런 일 해 본 적은 있으시고?"</p>  
<p>"없습니다."</p>  
<p>"혹시... 특성은 어느 쪽으로?"</p>  
<p>"전투 계열입니다."</p>  
<p>'그건 다행이고만.'</p>  
<p>안전모를 쓴 팀장의 시선이 진우를 아래위로 한번 쓱 훑었다.</p>  
<p>'E급치고는 상당히 탄탄해 보이는 몸인데? 눈빛도 괜찮고.'</p>  
<p>진우는 차분히 팀장의 대답을 기다렸다.</p>  
<p>곧 팀장이 진우의 자격증을 돌려주며 호쾌하게 웃었다.</p>  
<p>"하하하, 여기 진우 씨 같은 사람 많습니다. 긴장하지 말고 잘해 봅시다."</p>  
<p>불혹의 나이를 넘겼음에도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아저씨였다.</p>  
<p>콧수염이 잘 어울리는 건 덤.</p>  
<p>"여기 대기하고 계시다가 다들 왔을 때 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. 들어가기 전에 장비 잊지 마시고요."</p>  
<p>"장비라면...?"</p>  
<p>"저기 바닥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들고 가시면 됩니다."</p>  
<p>"...네."</p>  
<p>진우는 한곳에 잔뜩 모아 놓은 곡괭이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<p>그때 목에 수건을 걸친 아저씨 한 사람이 급히 다가왔다.</p>  
<p>"배 씨! 우리 팀도 지금 일손이 부족해 죽겠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사람을 데려가면 어떡해?"</p>  
<p>"아이고, 수거팀이 그 정도면 됐지. 작업 차질 생겨서 게이트 폐쇄 타이밍 못 맞추면 자네들이 책임질 거여?"</p>  
<p>"아니, 그래도."</p>  
<p>수염 아저씨는 수건 아저씨를 돌려세우며 진우에게 미소 지었다.</p>  
<p>"성 씨는 거기서 쉬고 있어.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하고 올 테니까."</p>  
<p>"그냥 여기서 얘길 하지 또 어딜 간다고 그래?"</p>  
<p>"글쎄, 와 보라니까."</p>  
<p>두 사람은 옥신각신하며 금방 어디론가 사라졌다.</p>  
<p>'다른 분은 수거 팀인가...'</p>  
<p>상급 던전은 규모가 커서 공격대 하나가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다.</p>  
<p>그래서 분업을 한다.</p>  
<p>던전을 공략하는 공격대, 던전 안의 광석을 캐는 채굴 팀, 마수의 사체를 수거하는 수거 팀.</p>  
<p>채굴 팀과 수거 팀은 보스를 제외한 마수들이 전부 처치되면 던전 안으로 투입된다.</p>  
<p>진우는 채굴 팀에 지원했다.</p>  
<p>'...도구는 이게 다인가?'</p>  
<p>떨떠름한 얼굴로 곡괭이 하나를 집어 들었다.</p>  
<p>약하긴 해도 마력이 느껴졌다.</p>  
<p>'마력이 실려 있네.'</p>  
<p>전기를 이용하는 현대 기계들은 던전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다.</p>  
<p>때문에 이런 구식 도구들에 마력을 불어넣어서 사용하는 모양이었다.</p>  
<p>'...'</p>  
<p>곡괭이를 쥐어 보니 확실했다.</p>  
<p>채굴 팀 헌터들을 괜히 던전 광부라고 놀리는 것이 아니었다.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돌려 게이트를 바라보았다.</p>  
<p>허공에 떠 있는 거대한 구멍.</p>  
<p>C급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기의 게이트가 눈앞에 있었다.</p>  
<p>'이게 A급 게이트...'</p>  
<p>여기에 온 목적이 바로 이 녀석 때문이었다.</p>  
<p>'상급 던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.'</p>  
<p>비록 보스 말고는 모든 마수들이 제거된 상태지만 그래도 A급 던전의 내부 구조를 육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.</p>  
<p>'언젠간 나도 들어가야 하니까.'</p>  
<p>아는 건 힘이다.</p>  
<p>하지만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간접 체험으로는 한계가 있다.</p>  
<p>백호 길드의 신입들도 그 사실을 간과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던가.</p>  
<p>'내가 없었으면 아무도 살아 나오지 못했겠지.'</p>  
<p>아는 것과 겪은 것은 다르다.</p>  
<p>진우는 기회가 생겼을 때 A급 던전을 눈에 새겨 두기 위해 채굴 팀에 자원했다.</p>  
<p>볼품없는 곡괭이들을 봤을 땐 잠깐 후회가 들기도 했었지만 무시무시한 게이트를 보고 있으니 그런 마음이 싹 가셨다.</p>  
<p>'잘 온 것 같네.'</p>  
<p>재측정까진 시간도 좀 남아 있으니 좋은 기회가 아닌가.</p>  
<p>이야기가 잘 풀렸는지 곧 수염 아저씨, 아니 배윤석 팀장이 웃으며 달려왔다.</p>  
<p>"이제 들어가자고, 다들 준비됐다네."</p>  
<p>곡괭이를 움켜쥔 진우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